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24장, 그 이상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에 관해 더 말할 내용이 있습니까? 글썄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에스겔서와 신약성경의 관계이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외계인의 책이라는 것을 매우 잘 인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구인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낯선 일이다. 아마도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바빌론의 포로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그들을 집과 생계를 잃고 집과 멀리 떨어진 유럽 난민 수용소에 모여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시리아 난민들과 비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가끔씩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며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유용한 접근 방식은 가족, 가족 조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가계도를 조사하고 그 뿌리를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영국으로 여행을 가서 묘지의 오래된 묘비나 교회의 출생 목록에서 자신의 성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과 죽음. 그러한 가족 정신은 바울이 구약전서와 그것이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묘사하는 인물에 대해 생각한 일종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회당에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랍비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의 언급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서 그의 기독교 가르침에 그 개념을 적용합니다. 매우 자주 이방인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의 백성의 일부라고 그는 말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 가계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교훈하려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릅니다(로마서 4장 1절). 그는 더 나아가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은 무할레자나 할레자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의 유사성이 있고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오래된 문학 사진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이 신약 저자들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연합성서공회는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출판합니다.

뒷면에는 두 개의 색인이 있는데,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구약의 공식적인 인용문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성서의 기자가 특정 구약성서의 구절을 나열했음을 보여주는 구두 암시 색인입니다. 첫 번째 색인을 보면 신약성서 에스겔서에서 단 두 인용만 인용되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색인을 보면 에스겔서에 근거한 신약성서에 대한 언급이 무려 139개나 나옵니다.

139개의 참고문헌. 그리고 나는 이 두 번째 색인에 있는 모든 참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 중 상당수가 순전히 문학적이며 그다지 중요한 신학적 전달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전에 추리소설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불합리하게 화를 낸다고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화해를 원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적대한다면 누가 우리 편이 될까요? 음, 분명히 이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 대한 암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맥락은 상당히 다르며, 참고문헌은 단지 문학적인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네 바람을 언급하고 색인에는 아하, 그것은 9절의 에스겔 36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에스겔 37장과 다른 유사점은 없습니다. 요한은 에스겔의 문구를 두어 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약성서의 구절들에서도 그는 그것을 친숙한 문구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절들 사이에 유사성, 언어적 유사성이 있을지라도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에스겔을 언급한 대부분은 그보다 더 깊은 의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 중 상당수를 의도적이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가 두 시대, 즉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시대와 다가오는 구원의 시대를 다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책은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과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보면 패턴의 구원 측면의 특징이 포착되고 신약성서의 메시지가 의도된 성취로 제시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택된 모든 예언서에는 네 가지 특징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은 이 네 가지 주제로 신약성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다고 신약성서는 말합니다. 그 네 가지 중 첫 번째에서는 구약성서의 예언이 무엇이며 미래의 사실로 기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성서는 그것을 어떻게 포착하고 싶은지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예언서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에스겔서에 평행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이 선지자들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서와 관련하여 에스겔서가 어디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약성서에서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구약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의 은사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합류하기 위한 열방의 유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고대 약속의 성취를 주장하는 신약의 경향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메시아 왕이신 예수입니다. 에스겔은 유대 역사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다윗 왕권의 슬픈 역사를 넘어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다윗 왕권의 전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의 대리자로서 왕의 전통을 회복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주장을 한 이전 선지자들의 동맹자였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는 다윗 왕조를 유다 위에만 왕좌를 두는 대신 남북의 연합된 이스라엘을 고대했습니다. 37장에서 에스겔은 두 막대기의 상징을 통해 이전의 두 민족이 재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 아래에도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의 커뮤니티를 통해.

37장에 나오는 목자라는 단어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반복되어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다스릴 다윗 왕의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에서 다윗의 왕권이 언급됩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이 궁극적으로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목양의 은유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한 무리와 한 목자, 한 무리와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다보다 더 넓은 왕국에 대한 약속인 에스겔 37장을 특히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한은 11장과 52절에서 다윗 왕의 이러한 더 넓은 통치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로 모으실 것을 자신도 모르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히 예수님의 후원 하에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교, 북왕국 지파의 후손들에 대한 선교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 사명은 하나의 왕권, 하나의 국가, 남북의 재결합이라는 개념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안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4장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증거하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삼중 부르심에서 나옵니다(행 1:8). 또한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역인 예수님이 북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남왕국과 연합한다는 생각은 이런 곳에서도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에스겔서 34장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양은 왕권에 대한 은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전임자들은 에스겔이 포로 이전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가지고 계실 표준과 비교하여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 정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미래의 왕이 맡게 될 메시아적 역할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양치는 구절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암시 색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34:11 나 자신이 내 양을 찾고 찾아내리라.

그리고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리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인자로 와서 목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 임무는 유배자들을 초기 관심사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업에서 더욱 폭넓고 더 큰 관련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또한 17장 23절에서 장차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날 새로운 싹과 관련하여 다가오는 왕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관련 유사점과 함께 이 언급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언급은 4장과 32절에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왕권, 새로운 왕권, 새로운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에서 자라게 될 이 작은 씨앗,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이 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성장을 묘사하고 에스겔 17장에서 그 역할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설명하기 위해 겨자씨 비유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음, 이것이 선지자들이 원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메시아 왕의 이러한 역할과 목자로서의 파급 효과 에스겔은 여기 신약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예레미야 31장을 신약성서의 새 언약 주장에 대한 참조의 초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역시 에스겔의 언약 언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성경 인용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27절에 근거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 이중 언약 공식은 바울이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구약의 이상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에 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13장 20절에서 그는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묘사한다. 그는 신약성경의 색인인

이 문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인 에스겔 37장 26절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스겔서의 내용이 여기에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붙잡은 언약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가 두 개의 성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요엘서 2장의 끝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11장에서 예상되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곳에 모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헬라어 번역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이 헬라어 본문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겔서를 읽고 에스겔서에 약속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6장 26절과 27절의 더 확장된 사용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비유에 빠져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말한다. 너희는 우리가 예비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영어 버전, 확실히 New RSV와 NIV의 한 가지 단서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어로 육체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 그래서 돌판과 살로 된 마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에스겔서 36장과 27절에는 돌 같은 마음과 육신의 마음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한 유배자들의 굳은 마음이 육체처럼 부드러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므로써 이 일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러한 대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적용합니다. 돌과 살의 대비.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율법의 돌판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적 변형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과 다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추가 사항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돌판에 의존하는 유대교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에스겔이 말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7~8장에서 공식화할 주장, 즉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은사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1831년 에스겔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포하신 뜻에 순종하는 비결은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로 정의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에스겔 36, 35장의 영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5절입니다.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니 너희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리라. 글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5절에 나옵니다. 아니, 25장 아닌가요? 내가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리리니 너희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리라. 36,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0장과 22절에서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말합니다. 그는 약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우리 마음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편지를 배반한 수신자들에게 바로 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 25절과 히브리서 10장 22절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용서에 대한 은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제가 강의 초반에 이것을 언급한 바 있고, 또한 요한복음 3장과 5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중 에스겔서 3장 36, 35, 36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태어나는 것은 영생의 시작을 고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6을 참조한 것 같습니다. 25와 26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계속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36, 25, 26.

더러움 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에스겔이 말한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새 마음과 새 영, 사실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에스겔 36장의 다음 구절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정당합니다. 당신은 에스겔 36장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것이 내 자신의 사명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와 관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주제는 열방의 유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에게서 꽤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에스겔서는 이 주제에 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유배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넓은 마음은 그나 유배자들과 관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소위 이사야서 2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넓은 마음은 꽤 자유롭게 표현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민족들에 관해 말하기를 거부한 에스겔의 부정적인 태도는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과 17절에서 그 자신의 방식으로 그 부정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약성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중에서 나오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나오고 저희에게서 따로 있으라. 이제 그게 흥미롭습니다. 그 문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20장 34절과 41절의 한 쌍의 구절을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열국에서 모아 본향으로, 열방 중에서 모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버전에서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대신 받아들이거나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어 역본인 에스겔서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으며,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갈라지는 일을 말하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맥락에서,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서 나온 너희를 영접하리라. 바울은 이 본문을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에 적용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나라들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서 있던 곳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 즉 영적 이방인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에스겔은 29장에서 애굽의 제한된 회복과 16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제한된 회복을 예언했지만 아주 강력하거나 의미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외국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본 47장과 22절과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주 외국인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외국인이지만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이류 시민이 아닌 온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작은 수준에서 에스겔은 외계인에게 환영의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거주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등가물은 회당 예배, 회당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이류 예배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성인이 되어 개종했으며, 할례의 권리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기를 원했고, 예배하기를 원했으며, 가능한 한 유대인에 가깝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참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것은 에스겔서의 실제 구절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시험으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기독교 신앙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유대인 회당 공동체, 정회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비록 에스겔서에 정확한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신약성서가 포착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구약성서의 네 가지 지침을 살펴보고, 에스겔이 그러한 지침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선택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독특한 주제와 신약성경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에스겔서의 주요 항목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구절은 36장과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땅에서 추방함으로써 그들을 징벌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받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은 그를 오해했고 그가 더 강한 이방 신들에게 항복하도록 강요받은 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도 유다를 보면 패망한 백성을 보고 그들의 신도 패망하였다고 성급히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모독을 당하고 천박하고 멸시받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입지를 회복하려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36장이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39-7장에서 곡의 침공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런 침략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명성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에스겔서 20장 9절과 22절에도 다시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이나 광야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말했듯이, 그의 이름을 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해 행동하고 계십니다. 20-44절은 이것을 말하며 이 주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에스겔서의 중요한 구절은 3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 위대한 사업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입증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그토록 놀라운 지점으로 되돌리는데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큰 일을 행하여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그리고 마침내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청원은 에스겔 36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재림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그 궁극적인 진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옛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에 비추어 다시 읽혀진다.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번째 주제는 포로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땅으로 돌아온 후 수치심에 대한 미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이 내용이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포로들은 그들이 회복되고 용서받고 땅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그들의 죄악된 과거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그들의 죄악된 과거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20장에서도 나오고, 36장에서도 다시 나오고, 게다가 39장의 끝 부분에서는 이 부끄러운 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에서 여러분이 그때에 행하고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일을 행했다는 긍정적인 점을 발견합니다. 그 수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개종자들의 이전 생활 방식에 대해 말하며,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워하는 일들은 단지 과거의 일일 뿐이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하면서 주제별로 이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세 번째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은 이 책의 전반부 내내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탄생에 대해 속담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 판단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과 연관시키는 지옥불 설교처럼 들립니다.

아니,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글쎄요, 신약성서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죄에 대한 나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만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복음이 제시되지만, 사람이 죄와 죄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의 두 번째 단계로만 제시됩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임함은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인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아들 예수가 참여한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그 심판을 흡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등을 설교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

3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심판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긴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긴장감은 둘 다 함께 존재하며, 둘 중 하나가 없이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제시하므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라는 나쁜 소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에 관해 할 말이 너무 많고 그 경우 포로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전임자입니다. 그는 그 교훈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또 다시 말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썼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심판을 흡수하셨느니라.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에는 첫 번째 심판과 구원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는 그 자체로 매우 동일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대문자 J로 판단하는 것과 소문자 j로 판단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도전과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좋은 소식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도전을 들으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전도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올 희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로운 삶과 선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도전을 듣기 위해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의 구원의 메시지에는 이 경고가 너무 자주 나타나서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가 나란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에스겔의 역할이 구원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이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보초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보고 답변해 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에스겔 3장과 에스겔 33장을 매우 많이 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경고를 주어야 하고 그도 경고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그가 넘어가야 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파수꾼 역할로서, 그들이 실제로 이 경고를 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필자 자신이 에스겔이 수행해야 했던 보초 이미지의 구체화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인 에스겔처럼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 모든 경고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는 파수꾼과 파수꾼이 되라는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7절과 같은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산상수훈이 이 설교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로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던 경고가 있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길 예정인가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본문 아래에는 에스겔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십시오. 회반죽도 없이 부서지기 쉬운 돌담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흰 회반죽을 입혔는데 그것은 아름다웠고 견고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닥치면 그들이 의지했던 것과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전혀 견고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단단해 보이게 만든 것은 단지 그 위에 칠한 백색 도료, 그 백색 회반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 13장에 사용된 언어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서에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그 목록을 합산하면 에스겔서에 언급된 암시가 139개나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8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합계를 계산해 보면 에스겔서의 암시 중 58%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신약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비교하면 한 권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생각과 마음은 에스겔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기에 다른 많은 예언적 언급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는 구약성경을 아주 잘 알았고 자주 그것을 가져와서 그 교회들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81개의 참고문헌을 볼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몇 가지 참고문헌을 골라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15절에서 인자에 대한 환상은 그리스도에게 의미심장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에스겔 1장의 하나님에 대한 환상의 세부 사항입니다. :15.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며, 이는 26장과 28장의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에 매우 밀접하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두로 에 관한 언어가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더. 두로는 유다의 적으로서 있다. 그것은 로마의 원형 또는 비유로서 있습니다.

티레 언어를 매우 강력하고 자주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인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유사점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제시된 마지막 때의 절정 사건의 순서입니다. 거기에는 시간표가 있지만 그것은 에스겔의 시간표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과 4절에는 기독교 순교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과 일치합니다. 그 문맥에서는 은유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에 비추어 볼 때 부활의 은유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4장에서는 그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서 37장과 10절에 사용된 헬라이어 번역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즉 종말론적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부활한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 뒤에는 곡과 마곡이 전쟁을 해서 정복당하는 일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8절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땅에 정착한 지 며칠이 지난 후에 곡의 공격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번 천년왕국은 에스겔서의 여러 날 동안의 정착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곡과 마곡의 침략이 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으로 돌아가는 단계와 곡과 마곡의 침략이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순서에 해당하는 두 단계입니다.

그리고 넷째, 요한이 높은 산으로 끌려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되어 성읍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앉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새 성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에스겔 47장의 묘사를 따른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강 옆에는 달맞이 열매와 약옻을 맺는 두 나무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에스겔 47장과 12절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는 약간 순서가 어긋나서 성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44절까지와 비교됩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에스겔 37장부터 48장을 자신의 종말론적 틀에 대한 성경적 모델로 사용합니다.

종종 질문이 제기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의 메시지를 마지막 때에 관련시키고 그것을 기독교 환경에 적용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에스겔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를 주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에스겔 자료를 채택하여 하나님의 추가 계시에 일치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는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합니다. 그는 에스겔서의 계시를 기독교 계시에서 우리가 갖는 더 깊은 관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새 성문에 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문에도 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예, 에스겔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요한이 성전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에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의 종말론적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예'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존재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 대체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칭호.

별도의 신권은 없습니다. 선지자 40~48장은 신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따르면, 그는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전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만 그 개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왕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직자 이고 평범한 평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성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제사장직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없습니다... 암시적으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속죄 희생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그것은 도살의 표를 받은 어린양의 사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5:6. 그리고 한 희생제물이 있는데, 십자가와 관련하여 도살의 흔적을 지닌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7장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고 요한이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단 한 번의 희생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요한이 에스겔서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약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열방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 중. 에스겔, 우리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것을 가져와야 하며, 당신이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의 유입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열방을 위한 어떤 여지도 찾을 수 없는 이 오래된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론 에스겔을 국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더 넓은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가장 좋은 본문에 따르면,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으로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의 백성.

아, 그것은 옛 언약 공식의 변형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한 명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로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RSV는 더 나은 텍스트를 반영하지만 불행하게도 NIV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더 작은 읽기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나라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유배자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의 제약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제사장 훈련의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와 신약성서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고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인 에스겔서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지만 신약성서 저자에 따르면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긍정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과 신약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 사이에는 한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읽는 모든 독자는 에스겔이 볼 수 없었던 방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실제로 귀환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그것은 땅으로의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삶은 장미빛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삶이 꽤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을 예시하는 시편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담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 생활과 시온의 운명을 회복하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방 사람들 중에 말하게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왔고 상황은 여러 면에서 나빠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산을 회복하라는 조항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네게브에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에스겔과 다른 포로 이전 선지자들과 포로기 선지자들이 말했듯이 실제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은 이러한 현상을 고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에게 다가올 때, 구원의 총만함은 그것을 현재의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보다는 미래에 투영되어야 합니다. 그 땅으로 가보니 에스겔과 다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에덴동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삶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약속과 완전한 실현 사이.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인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기간에 수세기 동안 살아왔습니다. 사실 신약성서 자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단계를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따르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분할금, 구속과 함께 미래의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아직 유배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 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땅의 회복을 너무 자주 생각하고 그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관통하며 확실히 에스겔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은 다른 민족들의 유입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주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더 이상 그 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 대신 세상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생각할 때 보편주의가 있는 반면, 그 범위는 땅의 지리적 실체로 좁혀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행전에는 두 권으로 된 책에 아마도 놀랍게도 몇 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관점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의 선지자들과 에스겔서의 땅관에 매우 가까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복음 21-24장의 한 경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암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과 6절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 때니이까? 그리고 7절과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지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차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왕국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다소 영토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는 신약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약성경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 하나의 대답도 제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9-11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토대로 각자의 작업을 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더욱 추구하도록 말입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24회기, 신약과 관련된 에스겔서입니다.